

1주차

근대 여성 지식인의 도전, 나혜석

장영은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강좌 개요

02. 여학생의 등장

-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설립
- 여성인권선언, 〈여권통문〉
- 근대적인 여성 교육의 의미와 한계

03. 나혜석의 일본 유학

- 일본으로 떠난 미술 유학
- 여성 유학생의 당당한 선언,
〈이상적 부인〉 (1914)
- ‘배운 여자’의 자전적 소설 〈경희〉 (1918)

04. 나혜석의 독립운동과 여성운동

- 3.1운동에 참여한 여성 지식인들
- 신여성 나혜석의 결혼과 예술 활동
- 만주에 개설한 조선여자야학

05. 나혜석의 세계일주

- 조선 여성 최초의 세계일주
- 나혜석의 ‘서유견문’
- 여성 참정권 운동과 조우하다

06. 나혜석의 가부장제 비판

- 〈이혼고백장〉 (1934)
- 〈신생활에 들면서〉 (1935)
- 〈어머니와 딸〉 (1937)

6차시

나혜석의 가부장제 비판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- 가부장제 사회에 정면으로 맞선 나혜석의 글쓰기와 삶을 통해 1세대 여성 지식인의 사회적 발화의 의미에 대해 성찰한다.

학습내용

- 〈이혼고백장〉 (1934)
- 〈신생활에 들면서〉 (1935)
- 〈어머니와 딸〉 (1937)

〈이혼고백장〉 (1934)

1930년 이혼 후 생존을 위한 모색

- 화가이자 작가로서 사회적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노력
- ‘이혼녀’에 대한 사회의 냉혹한 태도
- 여자미술학사 폐쇄와 계속된 불운

‘이혼녀’라는 꼬리표

- 〈이혼 1주년 양화가 나혜석 씨〉

- “안동현의 즐겁던 홈 라이프와 예술의 도시를 찾아 순례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쓸쓸한 표정을 짓는 여사는 온 정력을 다 바쳐 양화를 그리고 있다.”

《신동아》 1932.11

〈이혼고백장〉 《삼천리》 1934.8 - 9 발표

- 이혼의 원인과 과정
- 자신의 실수와 오판에 대한 인정
-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반박
-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는 차별적인 가부장제의 정조관 비판

〈이혼고백장〉

- “나이 사십, 오십에 가까웠고, 전문교육을 받았고 남들이 용이히 할 수 없는 구미만유를 하였고 또 후배를 지도할 만한 처지에 있어서 그 인격을 통일치 못하고 그 생활을 통일치 못한 것은 두 사람 자신은 물론 부끄러워 할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 대하여서도 면목이 없으며 부끄럽고 사죄하는 바이다.”

〈이혼고백장〉

- 부제 ‘청구 씨에게’
- 청구 씨(전 남편 김우영)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
- 김우영과의 만남과 결혼, 이혼의 과정 회고
- 결혼 생활 중의 갈등
- 이혼의 결정적 계기가 된 최린과의 관계
- 김우영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와 위협

〈이혼고백장〉

- “죽는 일은 쉽습니다. 한 번 결심만 하면 그 다음은 극락입니다.

그러나 내 사명이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.

없는 길을 찾는 것이 내 힘이에요 없는 희망을 만드는 것이

내 힘이었습니다.”

〈이혼고백장〉

- “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합니다. 자기는 정조 관념이 없으면서 부인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.”

〈이혼고백장〉

- “아울러 바라는 바는 80 노모의 여생을 편하게 하고 내 아이의 양육을 충분히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씨의 건강을 바랍니다.”

〈이혼고백장〉 (1934) 중

〈이혼고백장〉

■ 발표 후 쏟아진 사회적 비난



〈신생활에 들면서〉 (1935)

〈신생활에 들면서〉

- 이혼 이후 화가이자 작가로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 나혜석

《삼천리》 1935.2 발표

〈신생활에 들면서〉

- 이혼 이후 자신을 억누르는 사회적 편견과 가족, 친지들의 불편한 시선에 대한 고백
 - “그림을 팔아먹기 어렵고 취직하기 어려워 생활 안정이 잡히지 못하였고”
 - “형제 친척이 가까이 있어 나를 보기 싫어하고 불쌍히 여기고 애처로이 생각하는 것”
 - “친우 지인들이 내 행동을 유심히 보고 내 태도를 눈여겨보는 것”

급진적 정조론

- “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요. 오직 취미다.

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떡 먹고 싶을 때 떡 먹는 것과 같이

임의용지로 할 것이요,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다.”

〈신생활에 들면서〉 (1935) 중

〈신생활에 들면서〉

- “가자, 파리로. 살러 가지 말고 죽으러 가자. 나를 죽인 곳은 파리다. 나를 정말 여성으로 만들어 준 곳도 파리다. 나는 파리로 가 죽으련다. 찾을 것도 만날 것도 얻을 것도 없다. 돌아올 것도 없다. 영구히 가자. 과거와 현재가 공인 나는 미래로 나가자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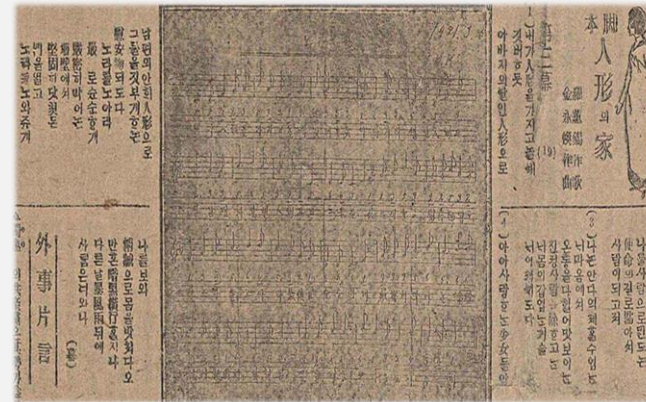
여성의 자립

- 이혼 후 더욱 절실하게 깨달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

‘인형의 가(家)’의 노랫말

- “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/깃버하듯
/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/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
/그들을 기쁘게 하는/위안물 되도다
노라를 노아라(…)”

《매일신보》 1921.4.3.



‘인형의 가(家)’의 노랫말

헨릭 입센의 희곡 〈인형의 집〉 (1879)

-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인형, 결혼 후에는 남편의 인형으로 살던 자신의 굴레를 깨달은 ‘노라(Nora)’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가정을 떠나는 이야기
- ‘노라’를 동경한 나혜석, ‘조선의 노라’로 불림

〈어머니와 딸〉 (1937)

소설 〈어머니와 딸〉 《삼천리》 1937. 10.

- 모녀 관계를 통해 ‘구여성’과 ‘신여성’의 갈등을 묘사
- 교육, 문학, 예술이 여성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
-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딸 영애를 걱정하는 ‘어머니’(구여성)와 하숙하는 독신 작가 ‘김 선생’(신여성)

김 선생이 설명하는 문학의 가치

- “어렵기야 어렵지만 잘만 하면 좋지.

영애는 독서를 많이 해서 문학을 하면 좋을 터야.

사람은 개인적으로 사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사는 것이 사는

맛이 있으니까 좋은 창작을 발표하여 사회적으로 한 사람이

된다면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이야.”

〈경희〉 (1918)에서 〈어머니 딸〉 (1937)까지

- 결혼, 이혼, 사회적 비난과 좌절, 몰락을 경험했으나,
스스로를 패배자로 규정하지 않은 나혜석

나혜석의 도전과 신념

-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자 최선을 다한 나혜석
- 여성이 배우고 읽고 쓰는 이유를 삶 전체를 통해 증명
- 잠재된 능력을 자각하며 자기를 잊지 않는 삶을 희망

학습정리

- 여성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으로 발화하기 시작한 근대의 변화
- 문학과 예술, 사회 참여와 실천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선각자 나혜석의 삶

다음 차시에서는

- 김일엽의 삶과 사상

SOURCES

[출처01] 《조선중앙일보》 1934년 9월 20일자 6면

[출처02] 《매일신보》 1921년 4월 3일자 1면

- 김은실, 〈조선의 식민지 시기인 나혜석의 근대성을 질문한다〉, 《한국여성학》 24(2), 2008.
- 나혜석, 장영은 엮음, 나혜석, 《글 쓰는 여자의 탄생》, 민음사, 2018.
- 나혜석, 이상경 엮음, 《나혜석 전집》, 태학사, 2002.
- 이상경, 《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-영원한 신여성 나혜석》, 한길사, 2009.
- 나혜석학회 엮음, 《나혜석을 말한다-나혜석 관련 자료 모음》, 황금알, 2016.
- 나영균, 황소자리 편집부 옮김, 《일제시대, 우리 가족은》, 황소자리, 2004.
- 윤범모, 《화가 나혜석》, 현암사, 2005.
- 이배용, 이현진, 《스크랜튼-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등불을 밝히다》,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, 2008.
- 정현백, 김선주, 권순형, 정해은, 신영숙, 이임하, 《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》, 사람의 무늬, 2016.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화진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